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 주 회¹⁾

문 은 미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204명과 그들의 부모 204명이다. 측정도구는 부모 진로지지(부모용) 척도, 부모 진로지지(자녀용) 척도,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t 검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진로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 모든 하위 영역에서 부모가 자녀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부모가 지각한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가 대화적 지지를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졌으며, 부모가 경험적 지지를 적게 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진로결정수준, 진로의사결정, 진로지지, 부모 진로지지

* 본 연구는 2010년도 동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사 (E-mail : anne332@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진로 결정이다. 진로결정을 위해서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 등을 바탕으로 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성과 입시경쟁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여유도 없으며, 구체적인 직업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업세계는 과거보다 더 다양화·세분화되어 가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과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입시 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위주의 진로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진로결정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진로결정을 하고 있다(이재창, 1994). 그 결과로 대학진학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 중도탈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후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많은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고민 중에 진로 및 직업선택 문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겼을 때 주로 친구나 선배(50.4%)와 상의하며, 다음으로 스스로 해결(13.6%)하거나 부모(11.0%), 형제(4.8%), 지도교수(4.8%) 순으로 상의한다고 하였다(이재창 등, 1995). 진로결정이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청소년의 진로결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의 주변인물에게도 큰 부담과 도전이 되는 일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에 의하면 진로 및 직업선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부모(35.7%), 친구(17.1%), 동료나 선배(13.3%), 친척이나 친지(10.5%), 학교교사(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은 진로결정시 부모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역할모델과 조언자로서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다(금명자, 2003; Trusty, 1996).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문제에 객관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무관심하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David, Theresa & Robert, 2004).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등의 일반적 내용에 비해 진로 및 직업정보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 하며 소극적이다(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장석민, 이지언, 임언, 1999).

서양의 전통적인 연구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타인의 개입을 의존적 유형으로 보고 타인을 배제해야 하는 요소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다(Harren, 1979; Krumboltz & Hamel, 1977; Parsons, 1909). 그러나 개인과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환경·사회·문화 등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진로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최근 연구자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유의미한 타인의 관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모를 비롯한 유의미한 타인은 의사결정자에게 대안의 확장, 정보의 제공, 현실가능성 고려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Blustein, 2001; Blustein et al., 1997; Phillips, 1997; Way & Rossmann,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변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많은 연구들은 애착, 심리적 독립, 양육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생애 초기 경험을 기초로 한 연구들이다(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Blustein et al., 1991; Bradley & Mims, 1992; Eigen, Hartman, & Hartman, 1987; Felsman & Blustein, 1999;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Leong et al., 2001; Moon et al., 1993; Ryan, Solberg, & Brown, 1996; Watkins, 1984; Watkins & Savickas, 1990).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노력하면서 자신과 맞는 진로를 선택했으며, 진로선택에 더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ustein, Prezioso, Schultheiss, 1995; O' Brien, 1996). Roe와 Siegelman(1963)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직업선택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에 의하면, 따뜻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성장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한 욕구충족 방식을 배우게 되어 인간지향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차가운 부모자녀관계에서 성장한 사람은 사람과의 접촉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한 욕구충족 방식을 배우게 되어 비인간지향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Roe & Siegelman, 196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는 진로발달과업을 비롯한 전 생애에 걸친 발달적 특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부모대상 연구와 자녀대상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점이 밝혀졌다(금명자, 2003; 진미석, 손유미, 2000; 한상근, 2001).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관계중심의 부모자녀관계속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해 자발적이고 밀접한 관여를 하고 있다(선헤연, 2009; 임언, 정운경, 상경아, 2001).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는 취하고 있지만, 정작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제공을 비롯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영, 2010). 한국청소년상담원(1993)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녀양육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과거에 배웠던 경험을 의존하는 방법과 다른 부모들과 상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방법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

퍼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부모의 조언이나 기대를 당연시하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금명자, 2003; 선헤연, 2009;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미석, 손유미, 2000; 한상근, 2001). 청소년은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감소되었고,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았다(김수리, 이재창, 2007; 이광자, 2004). Tokar 등(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애착 및 친밀성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진로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O'Brien, 1996). 반면 Larson와 Wilson(1998)에 의하면 부모의 기대나 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의사결정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김지현 등(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 진로탐색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시 부모나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되면 진로결정을 더 어려워하였다(Gati, Krausz, Osipow, 1996). 특히, 부모위주의 진로결정은 진로미결정의 중요한 원인이자 진로상담의 주호소문제가 되기도 한다(이재창, 1994).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선택의 범위는 부모의 지지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Middleton & Loughhead, 1993).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기 보다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그들이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김수리, 이재창, 2007).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이광자, 2004).

진로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부모에 대한 연구들조차도 연구대상 자체가 청소년이다. 부모와 청소년을 동시에 다루는 연구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선헤연, 2009). 또한,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청소년 진로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선헤연, 2009).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를 연구대상자로 함께 선정하여 진로결정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가 부모와 자녀 간의 지각 차이 연구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를 각각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고,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진로상담과 부모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에서 부모의 영향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지각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 진로지지는 부모와 자식간에 지각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 진로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부모 진로지지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고,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204명과 그들의 부모 204명으로 총 408명이다.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집단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94명(45.9%), 여학생이 111(54.1%)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이 92명

(46.0%), 고등학교 2학년이 108(54.0%)이었다. 부모집단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61명(30.5%), 어머니가 139명(69.5%)이었으며, 연령은 30대 이하가 7명(3.5%), 40대가 158명(78.2%), 50대 이상이 37명(18.3)이었다.

2. 측정도구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는 이상희(2009)가 개발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신효정 등(2010)이 부모평정 진로지지 척도로 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지지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Cronbach α 계수는 .71~.82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진로 및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제공하여 주는 여러 가지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대화적 지지는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지지를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님이 개인의 진로 관련 스트레스 상황을 잘 배려해주고 개인의 진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여 주는 지지를 의미한다. 경제적 지지는 부모님이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업이나 준비과정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주는 지지를 의미한다. 경험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와 직업 선택을 위하여 부모님이 자신이나 자신의 직장 동료들 통한 진로경험을 제공

하여 주는 지지를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CPSI: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Inventory)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는 이상희(2009)가 개발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지지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의 하위요인과 내용이 같다. Cronbach α 계수는 .66~.85로 나타났다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 척도

진로결정수준 척도는 Osipow(1980)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Scale: CDS)검사를 고향자(1992)가 우리 문화에 적절한 문장 표현으로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확신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18문항이며, 3~18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Cronbach 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부모용과 자녀용 설문지를 배부한 후 가정에서 작성해오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각각 20~30분가량 소요되

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부모와 자녀 설문지 총 40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 산출하였으며, 부모 진로지지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 검증을 사용하였다.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 진로지지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 간에 차이가 있는가?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 검증을 실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부모 진로지지의 정보적지지($t=.8.35, p<.001$), 대화적지지($t=.4.52, p<.001$), 정서적지지($t=.3.89, p<.001$), 경제적지지($t=.3.35, p<.001$), 경험적지지($t=.5.58, p<.001$) 전 영역에서 부모가 자녀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 진로지지의 부모와 자녀 지각 차이(Paired-t 검증)

변인		부모진로지지				<i>t</i>
		부모 지각		자녀 지각		
		<i>M</i>	<i>SD</i>	<i>M</i>	<i>SD</i>	
부모 진로 지지	정보적 지지	10.88	2.16	9.37	2.40	8.35***
	대화적 지지	12.37	2.24	11.50	2.80	4.52***
	정서적 지지	12.63	1.98	11.94	2.72	3.88***
	경제적 지지	12.70	2.15	12.17	2.23	3.35**
	경험적 지지	11.46	2.62	10.39	2.51	5.58***

** $p < .01$, *** $p < .001$

2.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에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진로결정수준과 부모가 지각한 대화적지지($r=.21, p<.01$), 정서적지지($r=.15, p<.01$), 경제적지지($r=.16, p<.01$)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정보적지지($r=.16, p<.01$), 대화적지지($r=.21, p<.01$), 정서적지지($r=.23, p<.01$), 경제적지지($r=.22, p<.01$)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를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3.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진로결정수준($F=4.93, p<.001$)에 대해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의 대화적지지($\beta=.29, p<.01$)와 경험적지지($-.24, p<.01$)의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2%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적지지를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며, 경험적지지를 적게 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진로결정수준($F=3.19, p<.01$)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전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부모가 지각한 부모진로지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진로결정수준의 상관

변인	부모진로지지(부모 지각)					부모진로지지(자녀 지각)					진로 결정 수준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		
부모 진로 지지 ▽ 부모 지각	정보적 지지	1										
	대화적 지지	.55**	1									
	정서적 지지	.27**	.41**	1								
	경제적 지지	.39**	.35**	.43**	1							
	경험적 지지	.39**	.40**	.31**	.31**	1						
부모 진로 지지 ▽ 자녀 지각	정보적 지지	.38**	.30**	.20**	.09	.16*	1					
	대화적 지지	.29**	.44**	.39**	.14*	.20**	.65**	1				
	정서적 지지	.12	.26**	.46**	.21**	.15*	.42**	.65**	1			
	경제적 지지	.17*	.23**	.19**	.47**	.13	.36**	.40**	.41**	1		
	경험적 지지	.18*	.24**	.19**	.12	.44**	.41**	.31**	.26**	.14*	1	
진로결정 수준		.03	.21**	.15*	.16*	-.08	.16*	.21**	.23**	.22**	.07	1

* $p < .05$, ** $p < .01$

표 3.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중다회귀분석)

변인		진로결정수준			
		B	β	R^2	F
부모 진로 지지 ▽ 부모 지각	정보적 지지	-.58	-.14		
	대화적 지지	1.23	.29**		
	정서적 지지	.36	.08	.12	4.93***
	경제적 지지	.72	.16		
	경험적 지지	-.89	-.24**		

** $p < .01$, *** $p < .001$

표 4.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중다회귀분석)

변인		진로결정수준			
		<i>B</i>	β	R^2	<i>F</i>
부모 진로 지각	정보적 지지	.13	.03	.08	3.19**
	대화적 지지	.16	.05		
	정서적 지지	.49	.14		
	경제적 지지	.55	.13		
	경험적 지지	-.08	-.02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를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고,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진로지지에 대한 지각이 부모와 자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 진로지지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들이 자녀들에 비해 부모 진로지지 모든 하위영역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문제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녀는 진로에 대한 부모의 도움이 부모가 지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해 부모가 자녀가 지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지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Paulson &

Sputa, 1996). 또한 조용주(2010)의 공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보고한 점수가 자녀가 보고한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들이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에 대해 잘 모르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Hartos & Power).

본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간 지각의 차이는 선혜연(2009)의 부모의 관여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정보에 기초한 추천을 하는 행위를 자녀의 입장에서 경험에 기초한 권유라고 지각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입장에서 격려하는 행위를 자녀의 입장에서 위임이라고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지각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연구결과에서 부모들의 지각 점수가 높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진로지지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부모들이 제공하고 있는 진로지지의 정도가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정도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지각하는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지각하는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에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자신이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해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를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으며, 자녀는 부모가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를 많이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는 자녀의 진로문제에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결정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광자, 2004; O'Brien, 1996).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정적상관을 보였으며(김수리, 2004; 김수리, 이재창, 2007; 안혜경, 2008; 지이레, 2010; Turner & Lapan, 2002; Turner et al, 2003), 부모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진로탐색활동을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박지은, 2005; 송현심, 2010). 청소년 시기 진로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부모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인정받고자하는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또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았다(김행수, 2009; 안윤정, 2010; 이은경,

2000; Bowlby, 1982; Osipow, 1983).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의 지지와 도움이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선행 연구들도 있다. 조명실(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현림과 김순미(2007)가 여중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부모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Super와 Nevill(1984)의 연구는 본 연구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셋째,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가운데 '대화적 지지'와 '경험적 지지'만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가운데 '대화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가운데 '경험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자녀의 진로결정은 부모 진로지지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는 영향을 받으며, 자녀 자신의 지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로문제로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각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진미석 등 (2002)은 진로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역동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선혜연, 2009). 부모들이 진로문제에 조언자 및 역할모델로서 더욱 밀접한 관여를 하게 되며, 자녀 또한 부모의 조언이나 기대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선혜연, 2009;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David, et al. 2004). 이는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양한 대안, 직업정보, 현실가능성의 탐색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보다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청소년 모두 각자의 삶에 쫓기다 보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대화를 하게 되어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진로결정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는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임을 재차 확인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양육시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에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방법’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원, 1993). 이처럼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진로문제에 관여하면서, 자녀의 진로정보나 직업정보에 대해 자신 없어 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장석민, 이지언, 임언, 1999). 이러한 경험적 지지는 자녀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의 진로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상담 장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부모와 진로문제에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의도와 갈등 내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면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으며, 결국에는 부모자녀관계를 개선시키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선혜연, 2009, 진미석 외, 2002). 아울러, 대부분의 청소년 진로상담이 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진로상담 장면에서 부모를 참여시켜 부모의 지각을 파악하는 것이 자녀의 진로발달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선혜연, 김계현, 2007).

둘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서도 자녀 진로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려워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몇몇 프로그램은 자녀 진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양육방법, 자녀발달 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가 적극적으로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면 부모가 수 많은 정보 속에서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정보를 탐색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부모 자신이 먼저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업관을 성찰하고 자녀의 진

로결정에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특성상 불성실한 응답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질문지를 자녀를 통해 회수하였거나, 자녀의 질문지를 부모를 통해 회수하였기 때문에 응답내용에 오차변인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질문지 회수과정에서의 오차변인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지각을 현재 시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의 지각차이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 과거 생애 초기나 아동기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부모와 자녀의 역동을 통해 청소년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본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진로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적절한 참여가 중요함을 밝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금명자 (2003).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93-113.
-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지현, 김계현, 유정이, 황매향, 노경란 (2007). 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지도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김행수 (2009).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 (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2010). 청소년의 진로결정에서 청소년의 타인 관여 요청 방식과 부모의 관여 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혜연 (2009).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선혜연, 김계현 (2007).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1997~2006년. 상담학연구, 8(4), 1511-1527.
- 송현심 (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정, 김영빈, 이상희, 이상민 (2010). 부모평정 진로지지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 173-190.
- 안윤정 (2010).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혜경 (2008). 희망, 부모지지,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이, 황재원, 박지아 (2009).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3), 71-96.
- 이광자 (2004).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창 (2004). 진로교육 발전방안 탐색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 80-119.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여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현림, 김순미 (2007).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지각된 부모지지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6(3), 25-43.
- 임 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이지언, 임언 (1999).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명실 (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주 (2010).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23-1146.
- 지이레 (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석, 손유미 (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임 언, 윤혜경, 윤형한, 왕은자 (2002). 진로과제유형 분석에 따른 상담방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1993).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상근 (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lustein, D. L. (2001). Extending the reach of vocational psychology: toward an inclusive and integrative psychology of wor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2), 171-182.
- Blustein, D. L., Phillips, S. D., Jobin-Davis, K., Finkeberg, S. L., & Roarke, A. E. (1997). A Theory-building investigation of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3), 364-402.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E.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Schultheiss,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adley, R. W., & Mims, G. A. (1992). Using family systems and birth order dynamics as the basis for a college career decision-making cours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3), 445-448.
- David H. Montross., Theresa E. Kane., & Robert J. Ginn. (2004). *Career Coaching Your Kids: Guiding Your Child through The Process of Career Discovery*. CA: Davies-Black Publishing.
- Eigen, C. A., Hartman, B. W., & Hartman, P. T. (1987). Relations between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areer indecision. *Psychological Reports*, 60, 87-94.
- Felsman, D. E., & Blustein, D. L. (1986).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79-295.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uerra, A. L., & Braungart-Rieker, J. M. (1999).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parental relationship factor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3), 255-266.
- Harren, V. H. (1979). A model of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tos, J. L., & Power, T. G. (1997). Mothers' Awareness of Their Early Adolescents' Stressors: Relation betwee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 371-389.
- Krumboltz, J. D., & Hamel, D. A. (1977). *Guide to career decision making skills*.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Larson, J. H., & Wilson, S. M.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young adult career decision problem: A test of Bowenian theor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39-53.
- Leong, F. T. L., Hartung, P. J., Goh, D., & Gaylor, M. (2001). Appraising birth order in career assessment: Linkages to Holland's and Super's model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25-39.
- Middleton, E. B. & Loughhead, T. A. (1993). Parental Influence on Career Develop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Adolescent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9(3), 161-173.
- Moon, S., Coleman, V., McCollum, E., Nelson, T., & Jenson-Scott, R. (1993). Using the genogram to facilitate career decisions: A case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4(1), 45-56.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 Osipow, s. h. (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Paulson, S. E., & Sputa, C. I. (1996). Patterns of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Perceptions of Adolescents and Parents*. *Adolescence*, 31, 369-381.
- Phillips, S. D., Blustein, D. L., Jobin-Davis, K., & Finkelberg White, S. L. (2002). Preparation for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view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1-15.
- Roe, A., & Siegelman, M. (1963). A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 355-369.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 Super, D. E., & Nevill, D. D. (1984).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 of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255-270.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19.
- Trusty, J. (1996). Relationship of parental involvement in teens' career development to teens' attitudes, percep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30, 317-323.
- Tuner, S. L., Alliman-Brissett, A., Lapan, R. T.,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4.
- Tuner, S. L., & Lanpan, R. T. (2002). Career self-efficacy and perceptions of parent support i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44-55.
- Watkins, C. E. (1984).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Toward an adlerian vocational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4(1), 28-47.
- Watkins, C. E., & Savickas, M. L. (1990). *Psychodynamic career counsel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Contemporary topics in vocational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ay, W. L., & rossmann, M. M. (1996). Family contributions to adolescent readiness for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1(2), 5-53.

1차 원고접수 : 2011. 3. 22

수정원고접수 : 2011. 5. 18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The Effects of Decision Scale from Parental Career Support to Juveniles as Perceived by both

Lee, Ju-hee

Mun, Eun-Mi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hich was centred on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as perceived in the course of decision-making for adolescents' careers, is to better understand how the different perceptives, between parents and their offspring, can influence the students' career decision scales. The survey participants consisted of 204 freshmen and sophomores from high school plus their parents.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Inventory for Parents, another for Children, and the Career Decision Scale were used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The paired-t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means of the SPSS 12.0 Program, which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Primarily, in the area of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the lower realms of parental support, such as informative dialogic, emotional, economic and experiential kinds of support, were seen to be more distinctive than those of their children. Secondly, the career decision-making scale and the dialogic, emotional, economic support which parents perceived revealed sub-variables (tranquil correlation). Furthermore, the decision-making scale of career and the informative, dialogic, emotional, economic support of which the teenagers had become aware revealed the same results. Lastly, the higher the parents' perceptive dialogic support becomes, the lower the parents' experiential support becomes, and the higher levels reveals itself on the young persons' career decision scales; whereas the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that the students perceived is found not to cause as great an influences upon their own career decision-making scales.

Key words :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career support. parental career support